

## 가족의사소통,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진로결정효능감의 관계모형 검증

박진채<sup>†</sup>

홍경자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고등학교 학생이 지각한 가족의사소통과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결정효능감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가족의사소통을 예언변인으로, 진로결정효능감을 결과변인으로, 그리고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관계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에 소재한 2개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410명과 3개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299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과 실업계 고등학생 집단의 측정변인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변량분산분석을 실행하였다. 그리고 변인들간의 관계모형을 탐색하기 위해서 AMOS를 이용한 공변량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계 고등학생들이 지각한 가족의사소통,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결정 효능감 수준이 실업계 고등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 집단의 경우 지각된 가족의사소통이 합리적 진로의사결정과 진로결정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은 가족의사소통과 진로결정효능감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가족의사소통이 합리적 진로의사결정과 진로결정효능감에 정적인 직접 효과를 보였고,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은 지각된 가족의사소통과 진로결정효능감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업계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지각된 가족의사소통이 진로의사결정과 진로결정효능감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고, 합리적 진로의사결정만이 진로결정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진로지도에 대한 시사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개진하였다.

주요어 : 가족의사소통,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진로결정 효능감

박진채는 전남대학교 교육학석사, 홍경자는 전남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음.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박진채, 광주시 서구 치평동 1166-1 현대아파트 103-1301

전화 : 017-640-0028, E-mail : jinchaep@hanmail.net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은 개인의 생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대학입시가 장래 진로를 결정한다고 보는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에서 고등학교 시기의 진로선택은 심각한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 장래성 등을 경시한 채 즉흥적으로 진로를 결정하거나, 부모와 교사 등 제3자의 뜻에 이끌려 수동적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추현섭, 1996). 이러한 현실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에 적합한 진로를 확신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하며 수많은 방황과 부적응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혜자, 변영인, 1999). 따라서 고등학교 시기에 올바른 진로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생활지도와 진로지도의 활동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1980년 초 진로발달이론에서는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기초하여 진로결정효능감(career decision-making efficacy)이라는 새로운 구인을 도입하였다(Hackett & Betz, 1981). 진로결정효능감이란 개인이 자신의 진로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의미한다. Luzzo(1993)는 진로결정효능감이 높으면 진로결정 수준도 높다고 하였다. 또한 Isaacson과 Brown(2000)도 진로결정효능감은 직업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중요한 변인으로서 작용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진로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진로결정효능감에는 과연 어떤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효과적이고 촉진적 의사소통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조력적 의사소통으로 상대방에 대한 인간적 이해와 존중의 태도를 필요로 하는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촉진적 의사소통은 Rogers와 Carkhuff 등이 효율적 상담을 위한 인간관계조건으로 제

안한 공감적 이해, 존중, 솔직성, 구체성, 직면, 자기공개, 즉시성 등의 하위요인을 포함한다(마정건, 1988).

촉진적인 가족의사소통과 진로결정효능감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argrove, Creagh와 Burgess(2002)는 가족관계에서 갈등의 정도나 분노, 공격성이 표현되는 빈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효능감은 떨어지는데 반하여 가족간에 경험하는 개방적인 감정표현과 격려 등은 청소년들이 진로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는 데 자신감을 심어준다고 하였다. 또한 마정건(1988)은 부모와의 의사소통 중에서도 아버지와의 의사소통보다는 특별히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서 조력적인 관계를 경험한 것이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황혜자와 변영인(1999)도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의 경험이 그들의 적응성 및 적극적 사고와 신념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인성발달 및 사고와 신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그들의 진로결정에도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그들의 진로결정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처한 환경과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각 개인은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선택·결정하기 마련이다. 이처럼 여러 대안들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대안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행위가 의사결정이라면, 진로와 관련하여 대안적 활동과정을 선택·실행하는 능력은 진로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김지순, 1998). 그러나 진로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과정을 지각하고 그에 반응하는 방식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Harren(1984)은 의사결정 유형을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그리고 의존적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의존적 유형은 주로 다른 사람들의 견해나 주장에 따라 자신의 진로나 계획을 결정하는 타입을 의미한다. 직관적 유형은 타인의 견해나 사실적 정보의 수집 절차를 생략한 채 자신의 육감 내지 즉흥적인 예감과 신념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는 타입이다. 합리적 유형의 인간은 의사결정을 할 때 현재의 결정이 다음의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예측하여 논리적으로 결정하며 자신이 결정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는 진로의사결정 유형 척도를 개발하여 진로발달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세 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합리적 유형인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또한 김지순(1998)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유형이 진로발달과정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고하였다.

Nieles 등(1997)은 진로결정을 할 때 합리적 유형의 점수가 높고, 직관적 유형과 의존적 유형의 점수가 낮을 때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합리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은 대화 과정에 있어서도 자신의 지평뿐만 아니라 타인의 지평까지도 성찰함으로써 독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세계에 대한 보다 넓은 이해를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며 인정과 개방성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다(최명선, 2003). 한편 서우석(1994)에 의하면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은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 중 한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타인이 부모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므로 부모와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사결정 성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부모, 특히 어머니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게 되면 그것이 청소년들이 합리적으로 진로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결과 진로결정효능감을 높여 주는가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의식과 직업관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성적 부진 등의 이유로 실업계를 선택하는 실업계 학생들이 학교 교과과정에서도 진로에 관한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진로태도의 성숙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염상균, 1989; 이성환, 1999; 조경구, 1993). 특히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진로결정 과정은 학교선생님이나 상담교사, 그리고 진로정보 책자를 이용하기보다는 가족이나 주변 친구와 상담하거나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용국, 1991). 반면에 일반계 학생들은 담임선생님이나 상담자, 진로정보 책자 등을 통한 철저한 정보를 토대로 진로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신의선, 1996). 따라서 일반계 고등학생들은 실업계 고등학생들에 비해서 의사결정 시 자신 및 상황에 대한 철저한 탐색과정을 거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자의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반계 고등학생들과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진로결정효능감을 비교해보면, 전자의 집단의 수준이 후자의 집단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즉 실업계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낮은 성적으로 인해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패배감을 경험했고, 따라서 자기효능감 수준이 그만큼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박점욱, 2004).

촉진적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변영인, 1999). 즉 학업성취도가 높은 일반계 학생들이 어머니와의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실업계 고등학생과 인문계 고등학생의 자아개념의 차이를 연구한 정수자(1999)에 의하면,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학업과 관련된 자아개념 뿐만 아니라 일반적 자아개념이 실업계

학생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학업자아개념은 학업성취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반계 학생들의 어머니와의 촉진적인 의사소통이 실업계 학생들보다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반계 고등학생들이 실업계 고등학생들보다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진로결정효능감 또한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관계에서 특히 어머니가 촉진적인 의사소통을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부모(어머니)의 질적인 관계, 즉 어머니와의 촉진적인 의사소통의 관계가 청소년 자녀의 합리적 진로결정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부모(어머니)와 함께 대화와 토론과 심사숙고의 기회를 가진 고등학생들은 자신감 있게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확신과 능력, 즉 진로결정효능감이 신장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청소년들의 가족의사소통과 진로결정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이 과연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일반계·실업계 고등학생별로 위의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나는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일반계 및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진로지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의사소통,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결정효능감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이 고등학생들이 지각한 가족의사소통과 진로결정효능감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는가?

셋째, 일반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지각한 가족의사소통,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진로결정효능감의 관계모형이 다른가?

## 방 법

### 연구모형

앞장에서 살펴본 바를 토대로 가족의사소통,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결정효능감의 관계를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으로 도식화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경합모형(완전매개모형)은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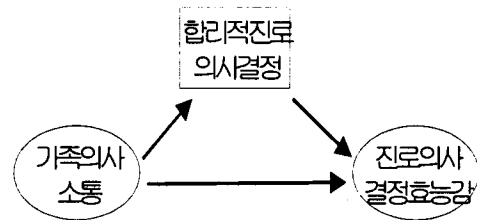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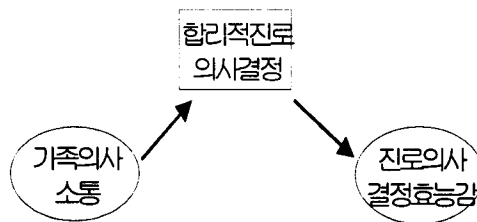


그림 2. 경합모형(완전매개모형)

###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전라남도 소재한 일반계 고등학교 2개교(남·여 각1개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2개교(남·여 각1개교),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실업계 고등학교 1개교(남·여 공학)에서 표집된 총 709명의 고등학생이었다. 연구대상자를 표로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측정도구**

**진로결정효능감 검사**

본 연구에서는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진로결정효능감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의 단축형(CDMSES-SF)을 조아미(2001)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진로결정 효능감 검사는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선택, 계획수립, 문제해결의 5개 하위요인에 각각 5문항씩 안배하여 총 25문항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전혀 그렇지 않다) ~ 4(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조아미(2001)의 연구에서 나타난 진로결정효능감 검사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97이고, 재검사 신뢰도는 .83이었

다. 진로효능감 검사의 하위척도별 문항번호와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Cronbach  $\alpha$ )를 표로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검사**

본 연구에서는 Harren(1984)이 개발한 진로의사결정 평가검사(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ACDM)를 고향자(1992)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Harren(1984)의 연구에 보고된 신뢰도(Cronbach  $\alpha$ )는 합리적 유형이 .81, 직관적 유형이 .54, 의존적 유형이 .78로 나타났다. 한편 고향자(1992)가 보고한 신뢰도(Cronbach  $\alpha$ )는 합리적 유형이 .76, 직관적 유형이 .41, 그리고 의존적 유형이 .65이었다. 이 검사는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을 측정하는 1(전혀 그렇지 않다) ~ 4(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4점 Likert 척도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유형의 하위척도 10문항만을 활용하였다. 이 하위척도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80이었다.

표 1. 연구대상자

구 분	남	여	합계
일반계	203명	207명	410명
실업계	195명	104명	299명
합계	398명	311명	709명

표 2. 진로결정효능감 검사의 하위척도별 신뢰도

하위척도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정보수집	1 10 15 19 23	5	.67
목표설정	2 6 11 16 20	5	.77
계획수립	3 7 12 21 24	5	.78
문제해결	4 8 13 17 25	5	.77
자기평가	5 9 14 17 22	5	.70

**가족의사소통 검사**

본 연구에서는 가족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검사를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검사는 Carkhuff의 의사소통 척도를 기초로 마정건(1988)이 개발한 검사인데, 이는 공감적 이해 7문항, 존중 7문항, 솔직성 7문항, 구체성 6문항, 직면 7문항, 자기공개 7문항, 그리고 즉시성 7문항으로 구성된 총 48문항의 5점 척도이다. 구체성 문항 중에서 ‘저는 이과(문과)에서 문과(이과)로 바뀌야겠어요. 아무래도 제 적성은 문과(이과)쪽인 것 같아요’를 묻은 1 문항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이과와 문과간 전환을 1학년 때 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였다. 마정건(1988)이 보고한 신뢰도는 공감적 이해 .74, 존중 .75, 솔직성 .55, 구체성 .42, 직면

표 3. 가족의사소통 검사의 하위척도별 신뢰도

하위척도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공감적 이해	1 8 14 21 28 35 42	7	.74
존중	2 9 15 22 29 36 43	7	.71
솔직성	3 10 17 24 3 38 45	7	.61
구체성	4 18 25 32 39 46	6	.51
직면	5 11 19 26 33 40 47	7	.52
자기공개	6 12 20 27 34 41 48	7	.66
즉시성	7 13 20 27 34 41 48	7	.67

.44, 자기공개 .65, 그리고 즉시성이 .62였다. 가족의사소통 검사의 하위척도별 문항번호와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Cronbach  $\alpha$ )는 표 3과 같다.

####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2개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3개교를 선정하였는데, 남녀 학생의 비율을 고르게 맞추기 위해 남자 고등학교와 여자 고등학교를 각각 1개교씩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학생들이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읽고 답하는 자기보고형 지필식 조사방법을 활용하였다. 검사는 담임교사의 지도 하에 학급단위로 자율학습 시간을 활용하여 시행되었으며, 전체 검사에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분석 기법은 다변량 분산분석(MANOVA), 상관분석 및 공변량구조분석(SEM)이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사소통,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결정효능감 변인에 대한 계열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

량분산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가족의사소통,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결정효능감 변인간의 관계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4.0 (Arbuckle, 1997)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공변량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더 나아가 고등학교 계열별로 위의 변인간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계열별 공변량구조분석을 실행하였다.

## 결 과

### 계열간 차이에 관한 분석

아래에서는 계열별 기술통계량, 그리고 계열간 가족의사소통,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결정효능감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일반계와 실업계의 하위변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다음으로 계열간 가족의사소통,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결정효능감의 차이를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통해 검증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먼저 가족의사소통에서는 일반계의 점수가 실업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 = 4.84, p < .001$ ). 각 하위변인에 대한 계열별 일원변량분석 결과를 보면, 솔직성, 직면, 자기공개, 즉시성, 그리고 존중 요인에서는 일반계의 평균점수가 실업계보다 높았지만, 공감적 이해와 구체성 요인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에서는 일반계의 평균점수가 실업계보다 높았다( $F = 36.9, p < .001$ ). 한편 진로결정효능감에서도 일반계의 점수가 실업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F = 3.79, p < .001$ ). 진로결정효능감의 하위 변인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결과를 보면, 직업정보와 계획수립의 경우 일반

표 4. 계열별 기술통계량

변인	일반계(n = 410)		실업계(n = 299)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족 의사소통	공감적 이해	20.36	4.54	19.78	4.63
	존중	21.03	4.56	20.29	4.50
	솔직성	22.02	4.64	20.29	4.72
	구체성	18.53	3.34	18.48	3.38
	직면	22.00	3.66	21.30	3.97
	자기공개	20.21	4.23	19.22	4.55
	즉시성	22.46	4.45	21.41	3.98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28.15	4.23	26.21	4.15	
진로결정 효능감	직업정보	16.84	3.20	16.18	3.10
	목표설정	17.04	3.33	16.63	3.35
	계획수립	16.75	3.15	15.90	3.40
	자기평가	17.32	3.20	16.85	3.25
	문제해결	16.86	2.97	16.86	3.08

표 5. 계열간 차 검증

구 분	종속변수	MANOVA			ANOVA		
		F	df	p	F	df	p
가족의사소통	공감적 이해				2.71		.100
	존중				4.69*		.031
	솔직성				23.71***		.000
	구체성	4.84 <sup>1)</sup>	7,701	.00	.10	1,707	.744
	직면				5.81*		.016
	자기공개				8.96**		.003
	즉시성				10.55***		.001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36.9***	1,707	.000	
진로결정효능감	직업정보				7.43**		.007
	목표설정				2.59		.107
	계획수립	3.79 <sup>1)</sup>	5,703	.00	11.7***	1,707	.001
	자기평가				3.78		.052
	문제해결				.01		.973

<sup>1)</sup> F값은 Hotelling's trace에 의해서 산출하였음( $p < .001$ ).

\* $p < .05$ . \*\* $p < .01$ . \*\*\* $p < .001$ .

계의 평균점수가 실업계에 비하여 높은 반면, 여타의 하위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전체 집단에 대한 공변량구조분석

아래에서는 고등학교 계열을 구분하지 않은 전체 집단의 변인간 상관과 변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먼저 제시한 다음, 가족의사소통,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결정효능감의 관계모형에 대한 공변량구조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전체 집단의 가족의사소통,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 및 진로결정효능감의 하위변인간 상관과 변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다음으로 전체 집단에 대한 가족의사소통,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그리고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의 관계모형을 공변량구조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를 제시하면 그림 3 및 표 7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해  $\chi^2$ , TLI (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 CFI (Comparative Fit Index) 통계량을 사용하였다(이순목, 1990). 분석결과,  $\chi^2$  값이 156.87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사례수가 많을 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시

표 6. 전체집단의 변인간 상관과 변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 $n = 709$ )

변인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	—												
x2	.465**	—											
x3	.362**	.442**	—										
x4	.041	.069	.202**	—									
x5	.013	.056	.198**	.030	—								
x6	.290**	.238**	.221**	.122**	.050	—							
x7	.249**	.346**	.395**	.136**	.194**	.175**	—						
x8	.024	.103**	.179**	.116**	.117**	.085*	.142**	—					
x9	.007	.094*	.155**	.055	.080*	.077*	.188**	.357**	—				
x10	.056*	.111**	.140**	.063	.050	.066	.149**	.321**	.671**	—			
x11	.032	.070	.127**	.009	.025	.110**	.096*	.315**	.646**	.684**	—		
x12	.010	.063	.144**	.002	.076*	.052	.182**	.376**	.660**	.685**	.671**	—	
x13	.042	.089*	.108**	.054	.047	.071	.143**	.241**	.515**	.494**	.504**	.570**	—
평균	20.12	20.72	21.29	18.53	21.71	19.79	22.02	27.33	16.56	16.87	16.39	.17.12	16.86
표준편차	4.58	4.55	4.75	3.35	3.81	4.39	4.29	4.30	3.18	3.34	3.28	3.22	3.01

\* $p < .05$ . \*\* $p < .01$ .

x1 공감적 이해, x2 존중, x3 솔직성, x4 구체성, x5 직면, x6 자기공개, x7 즉시성, x8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x9 직업정보, x10 목표설정, x11 계획수립, x12 자기평가, x13 문제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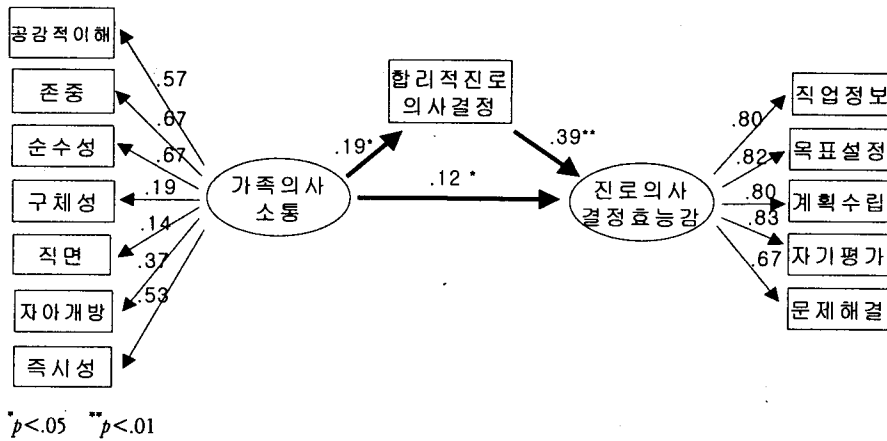


그림 3. 전체집단의 공변량구조분석 ( $n = 709$ )

표 7. 전체집단의 모형비교

모형	$\chi^2$	df	TLI	CFI	RMSEA
완전매개모형	165.64	64	.954	.962	.047
부분매개모형	156.87	63	.957	.965	.046
차이	8.77	1			

하였다. 반면에 TLI(.957)와 CFI(.965)는 .95보다 크게 나와야 적합하다는 적합도 기준을 충족시켰고, RMSEA(.046)는 .05보다 적게 나와야 적합도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연구모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전체집단에 대한 공변량구조분석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 4가지와 같다. 첫째, 가족의사소통이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 = 4.40, p < .01$ ). 둘째,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은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 = 10.07, p < .01$ ). 셋째, 가족의사소통이 진로결정효능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 = 2.91, p < .01$ ). 마지막으로, 가족의사소통과 진로의사결정 효능감관계에서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변인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

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분매개 모형과 완전매개 모형간의  $\chi^2$ 차 검증 ( $\Delta \chi^2 = \chi^2_{\text{완전매개모형}} - \chi^2_{\text{부분매개모형}}$ )을 시도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검증결과,  $\chi^2$ 차는 8.77이었고, .01수준에서 자유도 1의  $\chi^2$  임계치가 6.64이므로, 부분매개모형이 간명도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더 적합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매개효과의 유의도 검증을 Goodman(I) 검증(Baron & Kenny, 1986)으로 실시한 결과, 매개효과의 z값은 2.63으로 .05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계열별 공변량구조분석

아래에서는 고등학교 계열별 변인간 상관을

표 8. 계열별 변인간 상관(일반계  $n = 410$ ; 실업계  $n = 299$ )

변인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	—	.523**	.416**	.044	.024	.295**	.295**	-.047	-.025	-.007	.020	-.054	-.041
x2	.418**	—	.448**	.036	.008	.251**	.344**	-.007	.027	.024	-.008	-.043	.068
x3	.313**	.427**	—	.112	-.041	.198**	.327**	.001	.096	.096	.107	.066	.083
x4	.038	.092	.271**	—	-.001	.116*	.084	.075	.063	.026	-.006	-.002	.067
x5	-.006	.082	.183**	.053	—	.065	.167**	.095	-.004	-.015	.015	-.018	.032
x6	.278**	.216**	.212**	.126*	.020	—	.251	.093	.049	.048	.133*	.018	.091
x7	.210**	.338**	.420**	.170**	.200**	.104*	—	.022	.102	.078	.067	.103	.068
x8	.053	.153**	.241**	.146**	.104*	.039	.181**	—	.351**	.291**	.292**	.387**	.252**
x9	.019	.127*	.171**	.047	.129**	.079	.225**	.341**	—	.702**	.701**	.671**	.556**
x10	.097*	.166**	.158**	.090	.092	.070	.185**	.334**	.647**	—	.684**	.693**	.520**
x11	.028	.114*	.107*	.017	.012	.067	.093	.300**	.598**	.682**	—	.659**	.506**
x12	.050	.130**	.184**	.003	.141*	.065	.222**	.357**	.649**	.676**	.677**	—	.601**
x13	.106	.106*	.131**	.045	.060	.056	.197**	.245**	.489**	.476**	.511**	.550**	—

\* $p < .05$ . \*\* $p < .01$ .

좌측 하단은 일반계, 우측 상단은 실업계의 상관계수임.

x1 공감적 이해, x2 존중, x3 솔직성, x4 구체성, x5 직면, x6 자기공개, x7 즉시성

x8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x9 직업정보, x10 목표설정, x11 계획수립, x12 자기평가, x13 문제해결

먼저 제시한 다음, 가족의사소통,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결정효능감의 관계모형에 대한 공변량구조분석 결과를 일반계와 실업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일반계와 실업계를 구분하여 가족의사소통,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결정효능감의 하위변인간 상관계수를 제시하면 표 8과 같다.

####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에 대한 공변량구조분석

일반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변량구조분석 결과는 그림 4 및 표 9와 같다. 분석결과,  $\chi^2$  값이 122.8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사례수가 많을 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시하였다. 반면에 TLI(.951)와 CFI (.960)는 .95보다 크게 나와야 적합하다는 적합도 기준을 충족시켰고, RMSEA(.048)는 .05보다 적게 나와야 적합도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연구모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에 대한 공변량구조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의사소통이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 = 4.49, p < .01$ ). 둘째,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은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 = 6.71, p < .01$ ). 마지막으로, 가족의사소통이 진로결정효능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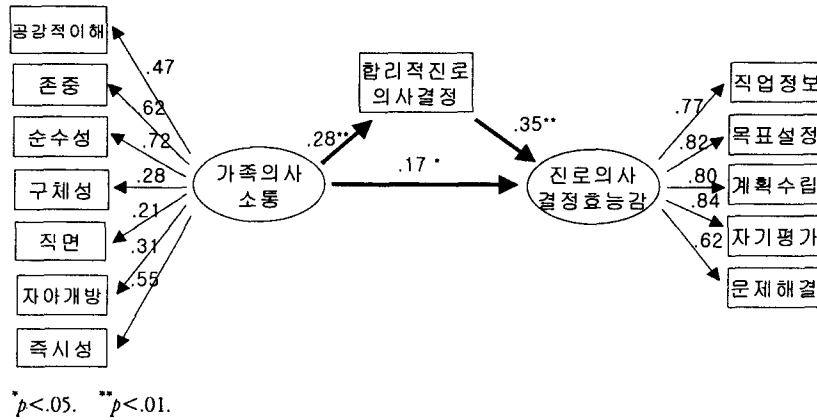


그림 4.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에 대한 공변량구조분석( $n = 410$ )

표 9.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의 모형비교

모형	$\chi^2$	df	TLI	CFI	RMSEA
완전매개모형	131.80	64	.945	.955	.051
부분매개모형	122.81	63	.951	.960	.048
차이	8.99	1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 = 2.85, p < .01$ ).

마지막으로 가족의사소통과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관계에서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변인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분매개 모형과 완전매개모형간의  $\chi^2$ 차 검증을 시도하였는데, ( $\Delta \chi^2 = \chi^2_{\text{완전매개모형}} - \chi^2_{\text{부분매개모형}}$ )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검증결과,  $\chi^2$ 차는 8.99이었고, .01 수준에서 자유도 1의  $\chi^2$  임계치가 6.64이므로, 부분매개모형이 간명도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더 적합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매개효과의 유의도 검증을 Goodman(I) 검정(Baron & Kenny, 1986)으로 실시한 결과, 매개효과의 z값은 3.89로 .05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계 고등학생 집단에 대한 공변량구조분석

실업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변량구조 분석 결과는 그림 5 및 표 10과 같다. 분석결과,  $\chi^2$ 값이 89.09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지만, 이는 사례수가 많을 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시하였다. 반면에 TLI(.973)와 CFI(.978)는 .95보다 크게 나와야 적합하다는 적합도 기준을 충족시켰고, RMSEA(.037)는 .05보다 적게 나와야 적합도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연구모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실업계 고등학생 집단에 대한 공변량구조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의사소통이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 = .03, p > .05$ ). 둘째,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은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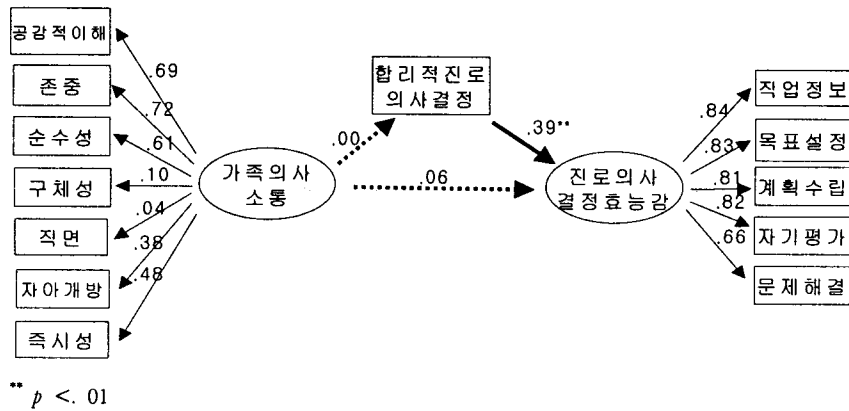


그림 5. 실업계 고등학생 집단에 대한 공변량구조분석( $n = 299$ )

표 10. 실업계 고등학생 집단의 모형 적합도

$\chi^2$	$df$	TLI	CFI	RMSEA
89.09	63	.973	.978	.037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 = 6.87, p < .01$ ). 셋째, 가족의사소통이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t = .95, p > .05$ ). 넷째, 가족의사소통이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가족의사소통이 진로결정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제시한 계열별 공변량구조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먼저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의 경우 가족의사소통이 합리적 진로의사결정과 진로결정효능감에 직접 효과를 갖고,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변인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여 부분 매개모형이 적합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업계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이 진로결정효능감에만 직접효과를 보이고 있을 뿐 여타의 경로계수가 유의하지 못하여 매개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 논 의

본 연구는 일반계 고등학생 410명과 실업계 고등학생 299명을 대상으로 계열간 가족의사소통,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결정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보고, 관계모형을 공변량구조분석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의 가족의사소통,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결정효능감 수준이 실업계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집단의 공변량구조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족의사소통과 합리적 진로의사결정간의 경로, 합리적 진로의사결정과 진로결정효능감 간의 경로, 가족의사소통과 진로결정효능감간의 경로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변인이 가족의사소통과 진로결정효능감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에서도 전체집단과 동일한 결과를 보

이고 있다. 그러나 실업계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합리적 진로의사결정과 진로결정효능감간의 경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이고, 다른 경로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각 경로별 결과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논의의 전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의사소통과 합리적 진로의사결정간의 경로계수는 전체집단과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김지혜(1997)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찍이 Rogers를 비롯한 학자들은 부모·청소년 관계 중 특히 모친·청소년관계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인성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마정진, 1988에서 재인용). 즉 가족과 촉진적인 의사소통을 경험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는 청소년보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학 진학과 직업세계에 진입을 앞둔 고등학교 시절에는 어느 시기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이러한 시기에 가족과의 적절한 의사소통은 그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켜 줄 수 있다(김오남, 김경신, 1994).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과의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자신의 상황에 대한 철저한 탐색을 하게 되고, 진학과 진로를 결정하는 합리성이 발달하는 점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최명선, 2003). 그러나 실업계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가족과 의사소통이 합리적 진로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합리적 진로의사결정과 진로결정효능감간의 경로는 전체 집단과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생 집단에서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합리적으로 진로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일수록 진로결정 효능감이 높다는 Nicles 등(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된 것으로 해석된다.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진로에 대한 탐색과정에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구할 가능성이 높다. 즉 직업세계에 먼저 진출한 경험자의 일화를 듣거나 격려와 지지를 받는 경험을 통하여 자신과 직업의 세계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효능감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가족의사소통과 진로결정효능감간의 경로는 전체집단과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의 경우 정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가족구성원간의 관계에서 갈등의 정도나 분노, 공격성이 표현되는 빈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효능감은 떨어지며, 가족관계에서 개방적인 감정표현과 격려를 경험한 집단은 진로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는 데 자신감을 갖는다고 한 Hargrove, Creagh와 Burgess (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류영애(1999)도 어머니의 공감적이고 촉진적인 의사소통은 자녀가 자신감 있게 진로를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가족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형성된 자아개념과 자존감은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청소년의 진로지도와 상담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고등학생들의 진로결정효능감 증진을 위해서는 첫째, 어머니와의 촉진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촉진적인 의사소통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둘째, 중고등학생들에게는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기와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을 하여 논리적인 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의사결정 유형 중 의존적 유형과 직관적 유형을 제외하고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변인만을 선택하여 관계모형을 검증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법에 의해 과거 행동을 회고적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피검사자의 응답에 기억의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5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집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들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상의 결론과 제한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족의사소통과 진로결정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의사결정 유형 중에서 오직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변인의 매개효과만 규명하였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의존적·직관적 진로의사결정 변인의 매개효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일반계와 실업계 고등학생 집단으로 나누어 다만 계열별 모형의 차이를 살펴 보았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일반계와 실업계 고등학생들에 있어서 가족의사소통, 진로의사결정 유형, 진로결정효능감의 변수에 따른 여러 가지 모형을 설정하여 다집단분석(multiple group analysis)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모형에 대한 교차타당화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향후에는 어머니와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아버지와의 촉진적 의사소통을 포함하여 관계모형을 설정하고 그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고향자 (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 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오남, 김경신 (1994). 어머니와 청소년자녀의 의사소통유형지각과 가족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32(3), 105-119.

김용국 (1991).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순 (1998). 고등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 의사결정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혜 (1997). 자아개념과 가정의 심리적 과정 환경이 인문계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영애 (1999).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자아개념 및 내외통제성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마정건 (1988).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인성특성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점욱 (2004). 일반계 고등학생들과 실업계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비교.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변영인 (1999).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가족적 응성 및 가족응집성과 자녀의 학업성취.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서우석 (1994).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과 관련변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익선 (1996). 인문계 고등학교의 진로지도 개선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

- 위논문.
- 염상균 (1989).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환 (1999).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선택 성향 및 직업관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목 (1990). 공변량구조분석. 서울:성원사.
- 정수자 (1999). 실업계와 인문계 고등학교의 자아 개념의 차이. 교육심리연구, 13(3), 307-329.
- 조경구 (1993).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관과 진로 선택 성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아미 (2001). 예비청소노동자의 전공 관련 직업체험이 진로의사결정 효능감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 연구, 12(1), 29-46.
- 최명선 (2003). 합리성의 대화적 추구하고 교육. 교육학연구, 41(2), 31-48.
- 추현섭 (1996). 고등학교의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혜자 · 변영인 (1999). 모친의 긍정적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학교적응성과의 관계. 학생연구, 27, 129~165. 동아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Arbuckle, J. L. (1997). *Amos User's Guide*. Chicago: Small Waters Corporation.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Hackett, G., &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9.
- Hargrove, B. K., Creagh, M. G., & Burgess, B. L. (2002). Family interaction patterns as predictors of vocational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1, 185-201.
- Harren, V. A. (1984). *Assessment of career decision-making*. LA: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Issacson, L. E., & Brown, D. (2000). *Career information, career counseling, and career development(7th ed.)*. Boston, MA: Allyn and Bacon.
- Luzzo, D. A. (1993). Value of career-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predicting career decision-making attitud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 194-202.
- Nieles, S. G., Erford, B. T., Hunt, B., & Watts, R. H. (1997). Decision-making styles and career development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8(5), 479-488.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7, 17-31.

원고접수일 : 2004. 9. 29.

수정원고접수일 : 2004. 11. 17.

게재결정일 : 2004. 11. 25.

## Verification of a Relational Model among High School Students' Perceived Family Communication, Rational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in-Chae Park

Kyung-Ja Hong

Department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high school students' perceived family communication, their rational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 relational model was verified by setting high school students' perceived family communication as a predictor, thei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s a criterion variable, and their rational career decision-making as a mediator. The subject were 709 high school students from two general high schools(N=410) and three industrial high schools(N=299) located in Gwang-ju city and Jeonnam Province.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scores in perceived family communication, rational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industrial high school students' scores. In perceived family communication, the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than industrial high school students in 5 subscales such as respect, genuineness, confrontation, self-disclosure, and understanding and concreteness. I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earn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than industrial high school students in two subscales such as information gathering and planning, but not in self-evaluation, goal selection and problem solving. Second, in both groups, their perceived family communication affected positively on their rational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However, their rational career decision-making had a partial role as a mediator. Third, perceived family communication affected positively on their rational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the group of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but not in the group of industrial high school students. In the latter, only rational career decision-making affected positively on thei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Based on the results, some suggestions were made for future research.

*Keywords* : perceived family communication, rational career decision-maki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